

#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29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 AI 반도체 변동성 확대는 쓸림의 해소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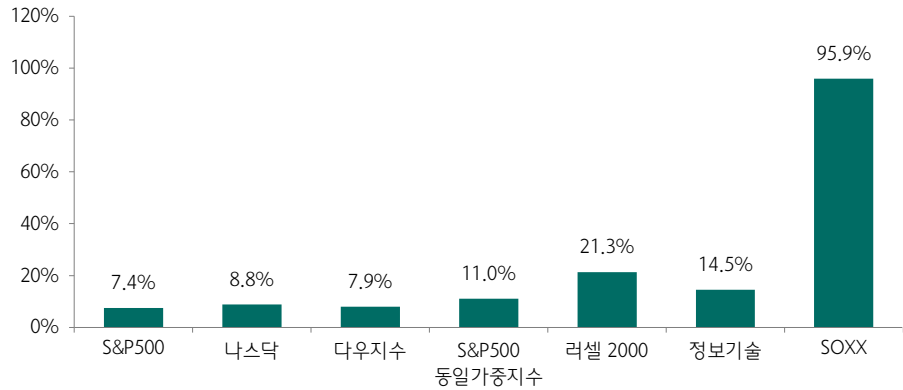
### 마이크론 실적: 더 넓게 봐야 하는 이유

- 최근 발생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반도체 주시에 과하게 쓸렸던 수급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ETF인 SOXX의 연초 대비 수익률(1/1~6/26)은 95.9%로 다우(+7.9%), S&P 500(+7.4%), 나스닥(+8.8%)보다 우월하다. 반도체가 속한 정보기술 섹터 수익률 14.5%보다도 크게 상회한다. 중동 전쟁이 시작한 2월 28일 이후부터 SOXX는 67.5% 상승했다. Factset에 따르면 SOXX의 FY 2026 EPS 컨센서스는 연초 대비 43.8% 향상됐고, 5월 초 대비 9.1% 향상됐다.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 확대는 펀더멘털 측면보다 수급적인 영향이 컸을 것이다.
- 지난주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마이크론의 실적은 여전히 강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시사했다. 시장참여자들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지난 분기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주가의 단기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론이 FY 2Q26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약했던 이유는 업황 정점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사이클이 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편견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 워크리를 통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한 걱정은 과하다고 했다. 근거는 강한 수요였다.
-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우려를 기대로 바꿀 정도로 양호했다. 이번 분기 매출총이익률은 지난 분기에 제시한 가이던스인 81%보다 높은 84.9%였다. FY 3Q26 매출총이익률은 86%로 제시했다. 마이크론의 생산 용량은 한정적이며, 이미 2026년분 제품은 모두 판매한 상황이다. 지난 분기 자본지출 전망 상향을 감안하면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대비 수요가 강해 가격이 오른 덕분에 강한 이익이 발생했으며,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FY 2Q26 자본지출 규모는 약 71억 달러로 시장 예상 수준이지만, 전년보다 166.3%, 전분기 대비 41.6% 큰 규모다. 다음 분기 자본지출 가이던스는 10억 달러로 더 확장된다. 시장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확정된 계약 기반의 증설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론은 체결된 16개 전략 고객 계약 중 14개 계약에 대해 최소 가격 기준 누적 매출이 남은 계약기간 동안 1,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으로 추정된 계약 금액이 FY 2025 연간 매출 374억 달러보다 3배나 크다. 체결된 장기 계약 중 현금 예치금 및 관련 재무 약정은 총 22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약 180억 달러가 현금 예치금 형태다.
- 이번 장기 계약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메모리 3사는 2018년 플랫폼 기업들의 공격적인 자본지출 덕분에 호황을 누렸다. 메모리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2017년에 가장 증가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2018년에 자본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시차가 존재한다. 2017년 마이크론은 실적 공시(10-K)를 통해 메모리 산업의 큰 변동성으로 고객들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꺼린다고 했다. 당시의 수주잔고가 향후 매출의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라고도 했다. 현재와는 반대 상황이다.
- 마이크론의 증설은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닌 확정된 고객 계약에 기반한 투자다. 장비 기업 입장에서선 수요 가시성이 높은 주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사이클에서 장비 기업들은 메모리 업황 피크 이후 급격한 발주 감소 및 주문 취소 등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수요자가 먼저 현금을 예치하고 계약을 확정된 구조다. 강력한 수요에 기반한 마이크론의 자본지출 확대가 이어지는 한 인공지능 수혜는 메모리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장비 공급사까지 넓게 분산된다.
- 애플이 CXMT로부터 메모리를 구매 승인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메모리 기업들 투자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허드슨연구소의 안보 전문가는 중요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중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미 전직 관리는 이것이 다른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선 오히려 비중국 메모리 기업의 증설을 지원할 유인이 더 크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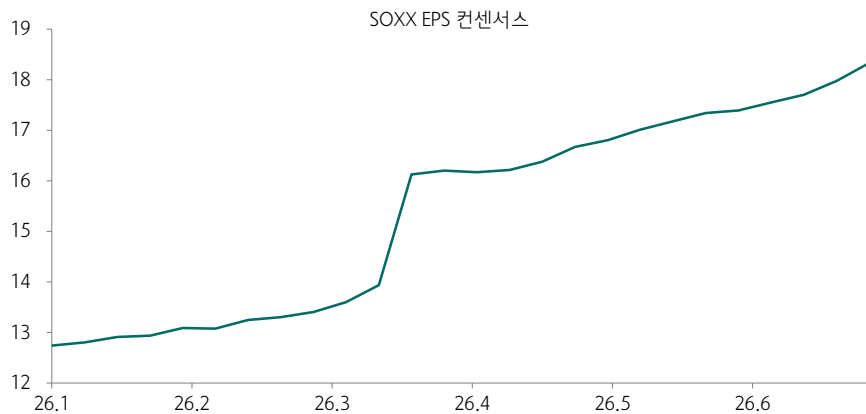
- 변동성 확대를 업황 정점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이크론 실적은 수요 초과, 가격 결정력 강화, 장기 계약 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확인해줬다. 중요한 것은 수혜가 메모리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정 계약에 기반한 공격적 증설은 반도체 장비 기업에도 가시성 높은 수요로 연결된다. 단기 수급 노이즈를 활용한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며, 투자 대상도 메모리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장비 공급사로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도표1. (1/1~6/26) 주요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수익률 높았던 SO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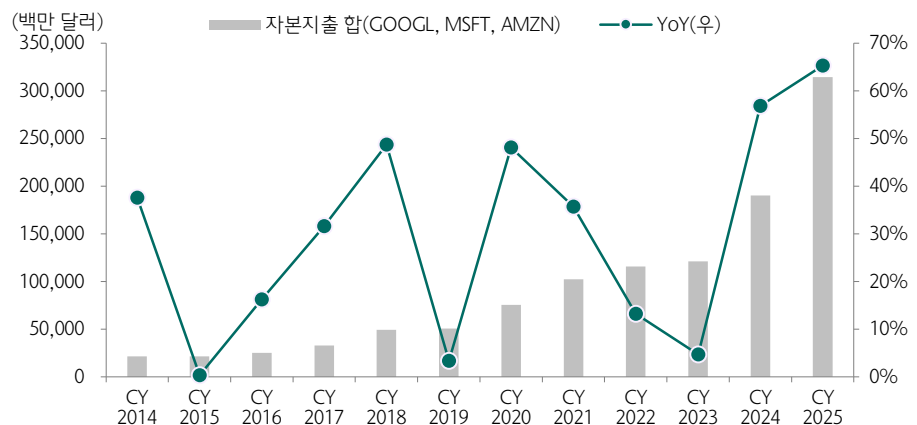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SOXX의 EPS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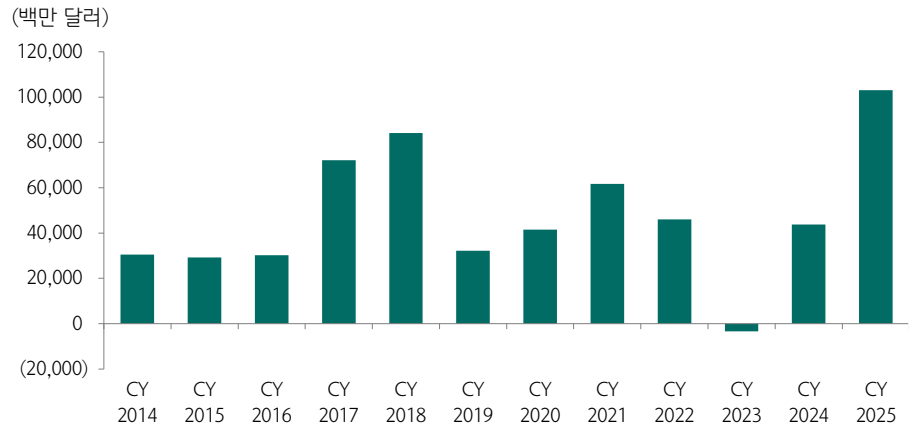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3.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지출 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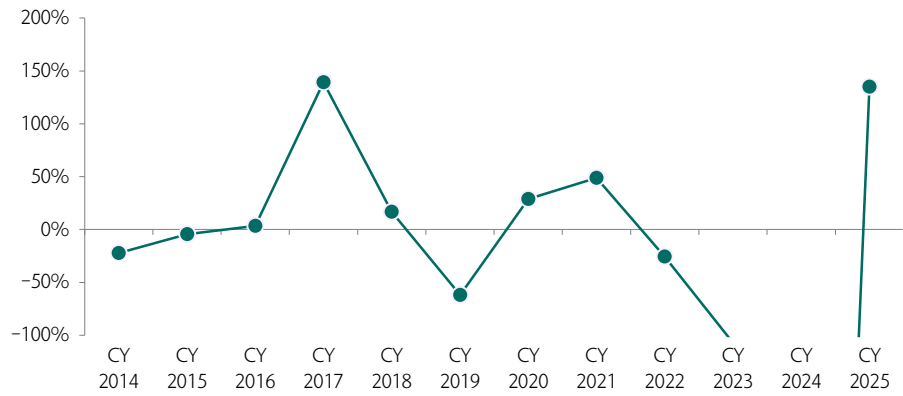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4. 메모리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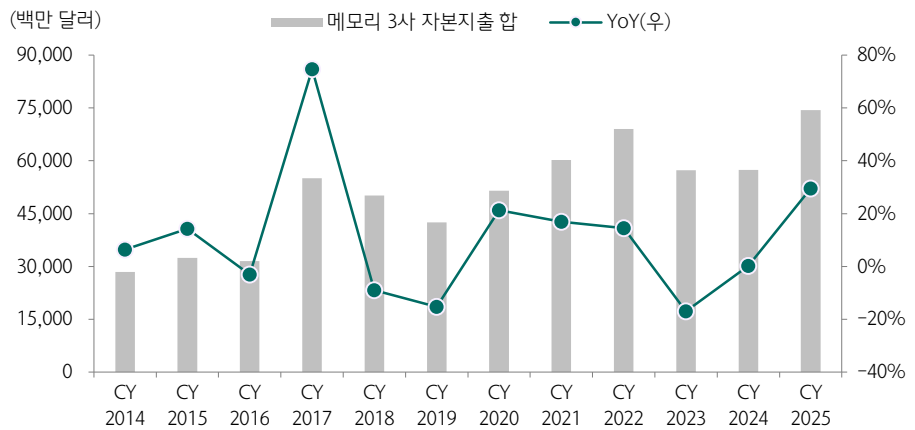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5. 메모리 3사의 영업이익의 증가율 추이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6. 메모리 3사의 자본지출 합



자료: Factset,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354.0	25,297.6	51,876.1	4,027.3	2,786.0
1W (%)	-2.0	-4.6	0.6	-1.5	-2.4

지수	1W (%)	1M (%)	3M (%)	6M (%)	1Y (%)	YTD (%)
S&P 500	-2.0	-1.0	15.0	7.0	19.0	8.0
NASDAQ	-4.6	-2.0	20.0	8.0	25.0	9.0
Dow	0.6	1.0	15.0	7.0	18.0	8.0
상해종합지수	-1.5	-1.0	3.0	1.0	17.0	1.0
심천종합지수	-2.4	-1.0	8.0	10.0	35.0	10.0

주) 6월 18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6월 22일~6월 26일) 리뷰: 나스닥, 반도체 하락

- 지난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다. 다우 지수는 0.6% 상승했으나,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 4.6% 하락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1%,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6% 올랐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는 4.9% 떨어졌으나, 가치주 ETF(VTV)는 0.9% 상승했다. 시장참여자들은 기술, 성장, 대형주보다 중소형 가치주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마이크론의 실적에 주목했는데, 예상보다 강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제시했다.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동성 지수(VIX)는 12.3% 급등했다.
- 마이크론이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노이즈가 다소 있었다. 오픈AI와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상장 연기 가능성이다. 오픈AI는 올해 상장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목표 기업 가치 달성을 위해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오픈AI의 올해 상장 불확실성은 소프트뱅크의 하락을 야기하기도 했다. 다른 이슈는 새로운 모델의 일반 공개 연기 가능성이다. 미국 정부는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우선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인공지능의 정부 통제 여지가 제기되기도 했다.
- 애플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다. 애플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소식이다.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격은 오르고 있으며,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 25일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20% 인상했다. 마이크론이 소비자 사업부 비중을 줄인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 CXMT의 메모리 사용 가능성이 대두됐다.
- 상승률 상위 섹터는 헬스케어(+7.9%), 부동산(+4%), 유틸리티(+3.9%), 필수소비재(+1.5%) 등이다. 방어적 성격의 섹터라는 공통점이 있다. 헬스케어 관련 바이오테크 ETF(IBB)는 7.9%, 제약 ETF(IHE)는 7.9% 등 고른 상승을 보였다.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하락률 상위 섹터는 커뮤니케이션(-6.2%), 정보기술(-5.4%), 경기소비재(-2.7%) 등 성장주 성격이 강한 섹터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해당 섹터 수익률을 끌어내렸다. 비M7 ETF(XMAG)는 포함이었으나,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5.9% 떨어졌다. M7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다(NVDA -8.6%, GOOGL -8.3%, TSLA -5.2%, AMZN -4.8%, AAPL -4.8%, META -4.7%, MSFT -1.7%).
- 알파벳은 인공지능 핵심 인재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다. 존 점퍼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이 엔트로픽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직전 주에도 제미니 AI 모델 공동 책임자인 노엄 샤지어가 오픈AI로 이직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중요한 인물들이 이탈하며, 경쟁력 약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전직 임원과 소송 소식이 있었다. 메타가 해고한 직원의 발언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 비방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퇴사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메타는 해당 임원은 이미 거액의 위로금을 받고도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용해 책을 홍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페이스X는 채권 발행 소식이 있었다. 22일 공시를 통해 적격 기관투자자에게 무담보 선순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나 가격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용처는 200억 달러 규모의 브리지론 상황과 관련된 비용 충당, 일반적 기업 운영 자금이라고 한다. 알리안츠 그룹의 CIO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버블 국면에 진입한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 이번 주(6월 29일~7월 3일) 프리뷰: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지속, ISM,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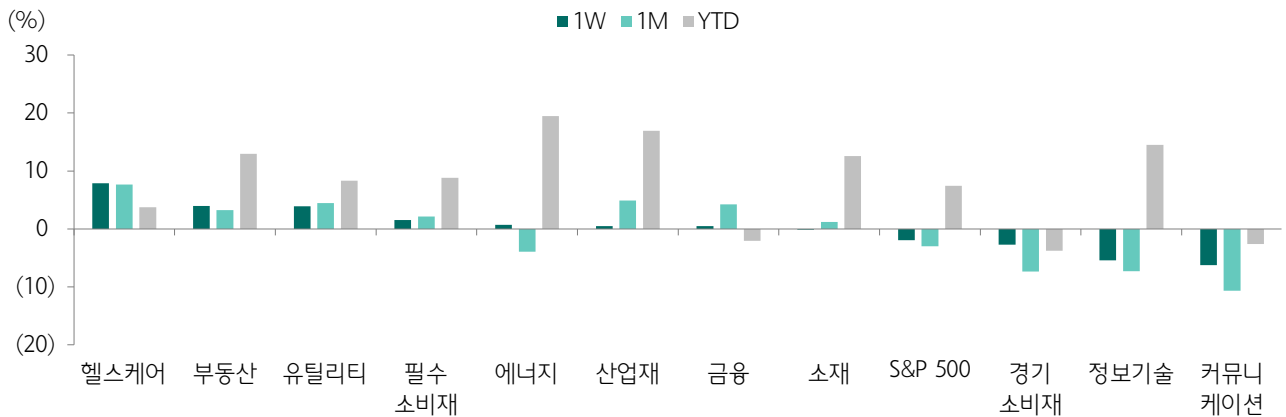
- 이번 주 미국 시장참여자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대응을 할 여지가 있다. 지난주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발생했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이벤트로 고용보고서와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있다.
- 현지 시각 27일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이 있었다. 시장참여자들의 눈은 다시 증등으로 향할 여지가 있다. 이란군이 싱가포르 화물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가한 것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기지와 해안 레이더 시설을 26일 타격했다. 이란은 남부 해안 지역을 공습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연계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표적이나 위치 등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이 17일에 서명한 종전 관련 양해각서에는 역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란 측이 화물선을 공격해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중동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은 변동성 확대에 약해진 투자심리에 부정적 요인이다.
-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확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ISM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는 미국 산업재의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확장 국면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여지가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미국 건설과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위클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덕분이다.
- 인공지능 인프라에 사용되는 부품 생산능력 확장도 제조업에는 긍정적이다. 하반기 전망 및 피치컬 AI 자료에서 추천했던 노벤탐타는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제조업 관련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첨단 공정(EUV 및 DUV 리소그래피) 등에 노벤탐타의 부품이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력 정책 중 하나인 리쇼어링도 일부에선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리비안 전기차 공장이 착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의 둔화는 지속될 여지가 있다. 최근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은 거시 환경 불안으로 미뤄던 고용이 나타난 것일 수 있지만, 약화되는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 5월의 경우 레저 및 숙박업 등 서비스업 고용이 크게 늘었다.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성 수요가 반영됐을 여지가 있다. 지속성은 약할 수 있다. 주정부 고용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절 조정 영향일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비효율성 제거라는 점에서 약해질 수 있다. 실업률은 예상 수준일 것이다.
- 미국의 ISM 제조업 PMI의 고용 지수를 감안하면 제조업 고용은 약할 수 있다. 지난 5월 미국 제조업 고용지수는 48.6으로 전월보다 2.2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축국면이다. 3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및 NFB 소기업 낙관지수의 응답자들은 고용 의지는 있으나 마땅한 인재가 없는 점을 문제로 언급한다. 일부 호황인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여지가 있는데, 컴퓨터, 전자제품, 운송, 기계 등이다. 인공지능과 리쇼어링 관련 산업이다. 지난 5월 ISM 제조업 고용지수에서도 해당 업종에서 고용 증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경제지표는 29일 6월 달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이전치 0.4), 30일 6월 시카고 PMI(이전치 62.7) / 5월 JOLTS 구인 이직 건수(이전치 7,618,000 건) /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이전치 93.1), 7월 1일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59%) / 6월 ADP 비농업 고용 변화(이전치 122,000 건) /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예상치 55.7, 이전치 55.7) / 6월 ISM 제조업 PMI(이전치 54) /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6,088,000 배럴), 2일 2분기 애틀랜타 GDPNow(예상치 2.5%, 이전치 2.5%) / 6월 비농업 고용(이전치 172,000 건) / 6월 실업률(이전치 4.3%) / 6월 시간당 평균 임금 MoM(이전치 0.3%)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215,000 건)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는 29일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7월 1일 케빈 워시 연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30일 NKE / STZ / PRGS, 7월 1일 GIS / FDS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6/26)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354.0	-0.0	-2.0	-3.0	15.5	6.5	19.1	7.4
나스닥	미국	25,297.6	-0.2	-4.6	-6.2	20.8	7.8	24.8	8.8
다우	미국	51,876.1	-0.1	0.6	1.7	14.9	7.0	18.4	7.9
STOXX600	유럽	635.9	-0.7	0.0	1.6	10.5	7.9	17.0	7.4
KOSPI	한국	8,411.2	-5.8	-7.1	-0.8	54.6	99.3	175.2	99.6
KOSDAQ	한국	851.4	-4.1	-11.9	-20.8	-25.4	-8.7	8.9	-8.0
상해종합지수	중국	4,027.3	-2.3	-1.5	-1.0	2.9	1.6	17.6	1.5
심천종합지수	중국	2,786.0	-3.1	-2.4	-0.7	8.0	10.0	35.7	10.1
항테크지수	홍콩	22,671.9	-1.8	-5.2	-10.0	-9.1	-11.6	-6.6	-11.5
TOPIX	일본	3,963.4	-1.3	-2.0	0.2	8.6	15.7	39.5	16.3
니케이 225	일본	69,360.9	-4.2	-2.7	4.6	30.0	37.3	72.8	37.8
니프티 50	인도	24,056.0	0.1	-0.5	2.2	5.4	-7.3	-6.2	-7.9
Vietnam	베트남	1,871.9	0.5	2.6	0.5	11.9	6.7	36.5	4.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6.2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헬스케어: 기술주 중심 증시 변동성 확대 속 방어주 선호 심리 강화되며 바이오테크-제약 전반 고른 강세
- 부동산: 성장주 약세 속 방어적 자산으로 자금 이동하며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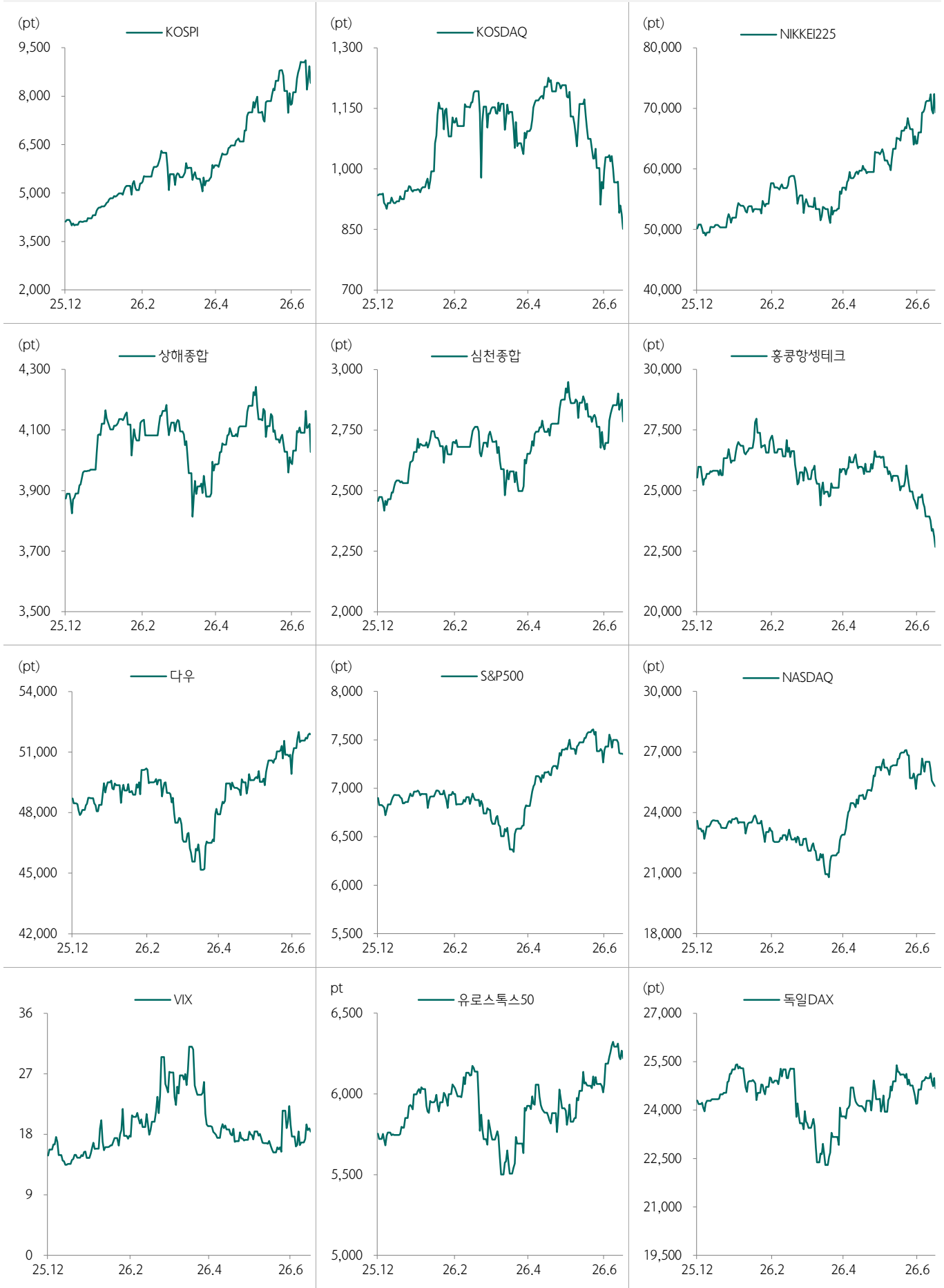
- 커뮤니케이션: AI 인프라 투자 비용 부담 우려에 금리 상승 압력까지 겹치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6/15	<p><b>마이크론, 엔트로픽과 AI 인프라 전략 협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크론이 엔트로픽과 메모리-저장장치 기반 AI 아키텍처 설계, 제품 공급, 클라우드 사내 도입, 전략적 투자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 HBM-D램-SSD가 AI 학습-추론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공동 분석해 성능, 전력 효율, 토큰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저장장치 공급 계약도 체결했으나 구체적 물량은 미공개. 마이크론은 엔트로픽 시리즈H 투자에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은 라운드에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한 바 있음</li> </ul>
6/18	<p><b>스페이스X, IPO 2주 만에 채권 발행으로 250억 달러 추가 조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페이스X가 투자적격등급 무담보 선순위 채권 발행을 통해 당초 목표(200억 달러)보다 늘어난 250억 달러를 조달, 시장 주문량은 약 900억 달러에 달함. 조달 자금은 xAI 인수를 위해 빌렸던 200억 달러 규모 브릿지론 상환 및 일반 운영 자금으로 사용 예정. 지난 6월 12일 IPO로 약 860억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추가 조달로, 보유 현금 자산은 1000억 달러를 상회. 우주·AI 사업 동시 확장을 위해 리플렉션과 최대 63억 달러 규모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도 600억 달러에 인수 절차 진행 중</li> </ul>
6/18	<p><b>미국 5월 PCE YoY +4.1%...2023년 4월 이후 최고, 인플레이 압력 확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상무부, 5월 헤드라인 PCE가 YoY +4.1%(2023년 4월 이후 최고), MoM +0.4%로 발표. 근원 PCE는 YoY +3.4%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17일 FOMC 동결 직후 발표된 지표로, 시장은 연말까지 약 1.5회 금리 인상을 반영 중이며 BofA는 9-10-12월 각 0.25%p 인상을 전망. 1분기 GDP 수정치는 연율 +2.1%로 종전 발표(1.6%)·예상치(1.7%)를 모두 상회했으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21만5천건으로 예상치(22만3천건)를 하회하며 경기 견조함을 시사</li> </ul>
6/18	<p><b>美 수출 통제 강화에 中 암시장서 엔비디아 칩 가격 2~3배 폭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비디아 AI 서버 'DGX B300'의 중국 암시장 가격이 6개월 사이 400만위안에서 800만위안으로 2배 상승, 미국 정식 판매가(약 40만 달러)의 3배에 달함. 데스크톱용 'RTX 6000 Pro'도 5만위안에서 최대 13만위안으로 급등. 미 당국의 불법 수출 조사 강화로 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을 통한 우회 경로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으며, 구형 A100 칩까지 3배가량 오르며 품귀 현상.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상업적 기회가 미국 국가 안보와 충돌할 경우 미국 이익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힘</li> </ul>
6/19	<p><b>오픈AI, IPO 내년 이후로 연기 검토...1조달러 밸류 고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AI가 당초 올해 3~4분기로 검토했던 IPO를 2027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YT가 보도. 최근 비공개 시장 평가액(약 7,300억 달러)보다 크게 높은 최대 1조 달러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나, 스페이스X 상장 후 높은 변동성이 투자자 수요 우려를 키운 것이 배경. 자문단은 밸류에이션 조정 시 더 빠른 상장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으나 올트먼 CEO는 1조 달러 밸류 하향에 반대 입장 유지. 회사 매출은 2025년 약 130억 달러로, 올해 3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 확보는 과제로 남음</li> </ul>
6/19	<p><b>애플, 맥북아이패드 가격 약 20% 인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플이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맥북·아이패드 전체 제품군 가격을 약 20% 인상. 512GB 맥북에어는 1099달러→1299달러, 256GB 아이패드 프로는 999달러→1199달러로 상향, 맥북 네오는 599달러→749달러로 25% 인상돼 폭이 가장 컸음. 애플은 "메모리-저장장치 비용 상승분을 그동안 흡수해왔으나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델·HP·레노버 등 노트북 업체와 삼성전자도 유사한 가격 인상에 나선 상태. 다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가격은 아직 동결 유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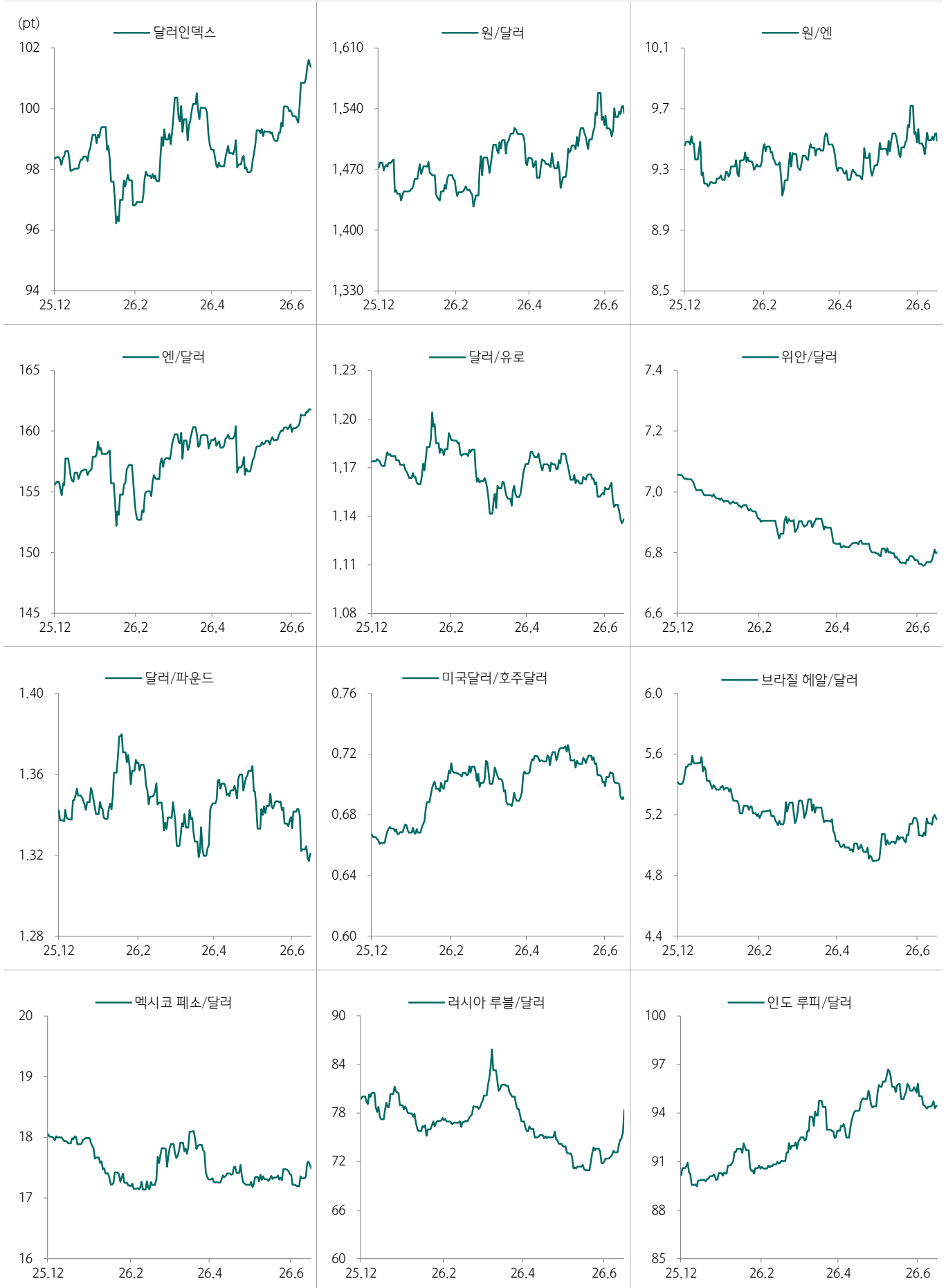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7월)				
일	화	수	목	금
6/29	6/30	7/1	2	3
	NKE STZ	GIS FDS		
6	7	8	9	10
			PEP PGR	DAL
13	14	15	16	17
FAST	JPM BAC GS WFC C	ASML JNJ MS BNY PNC MTB CAG	GE UNH NFLX STX ISRG ABT BX PLD	TRV FITB ROP RF
20	21	22	23	24
WRB DPZ	VZ BLK SCHW DHR MRSH GM NOC DHI MSCI HAL	TSLA GEV PM TXN IBM T CSX CME ELV KMI BKR NDAQ UAL	INTC MA KLAC LIN UNP HON RCL AMT AEP HSY FSLR DOW	XOM ABBV CVX AXP
27	28	29	30	31
WELL CDNS NUE BRO UHS	GOOGL MSFT V KO RTX LMT UPS MMM MDLZ TER PYPL	META ARM PG APG MCD TMO NEE BA GD SHOP EQIX NEM NOW	AAPL AMZN AMGN COP GILD VRTX BMY PWR HWM CEG DASH WBD	CL D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6/3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li> <li>6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이전 93.1)</li> <li>6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62.7)</li> </ul>
7/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이전 122K)</li> <li>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5.7)</li> <li>6월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이전 54.0)</li> </ul>
7/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비농업고용지수 (이전 172K)</li> <li>6월 실업률 (이전 4.3%)</li> <li>6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이전 4.3%)</li> <li>6월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li> </ul>
7/3(금)	** 삼일절 휴장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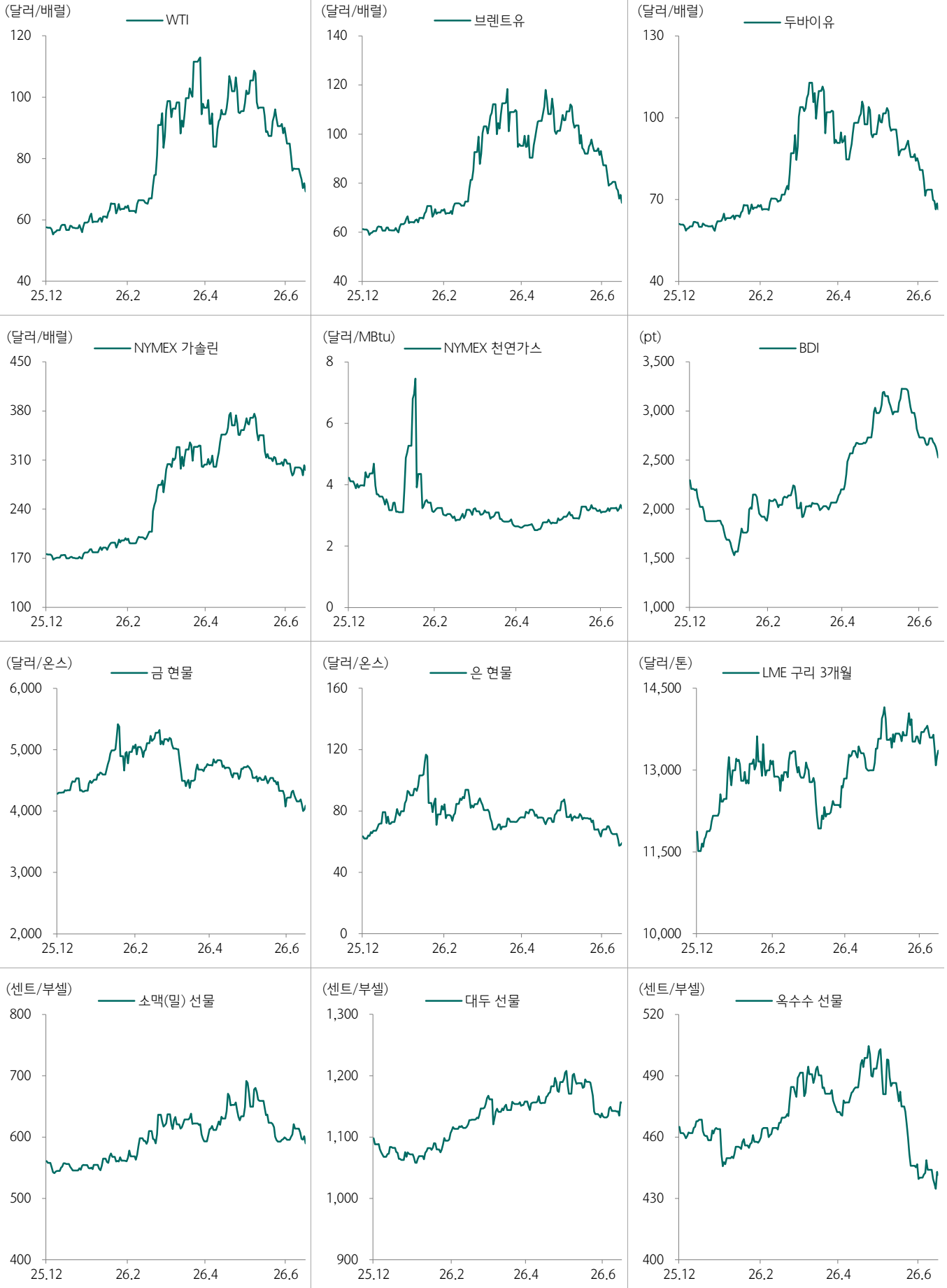
환율 추이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